

# 전북도 상반기 공모사업 66건 선정

### 국비 1685억원 확보 성과... 도정 3대 핵심과제 추진 가속화 기대

전북도는 2017년 6월중 중앙공모사업에서 지역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조성(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48억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정읍·고창, 20억원),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남원시니어클럽외, 8억원) 등 1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91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17년도 상반기 중앙공모사업에서 총 66건의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68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민선 6기 도정핵심인 삼라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을 추진하는데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삼라농정 등 농생명 분야 (13건, 207억7천만원)는 50ha 이상을 영농하고, 조직화된 들녘경영체1)에 농가조직화 및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21억1천만원)이다.

집단지원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구축을 통해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9억6천만원)이다.

법정 어항 배후지 등 어촌지역 생활중심지와 주변지역의 통합·거점개발을 통해 지역단위 생활권·경제권 확대와 상생발전을 추진하는 고창만돌곶역 종합거점개발사업(70억원)이 선정됐다.

토탈관광 및 문화체육 분야는 17건, 194억9천만원이며, 탄소산업 및 성장동력 분야는 9건, 569억원이다.

일자리 창출·고용안정 분야는 10건에 146억5천만원이다.

복지·환경 분야는 9건에 131억 8천만원이다.

앞으로 전북도는 7월에는 3건, 2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치권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 “태풍 ‘난마돌’ 주의하세요”

### 전북도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비상체제 전환

전북도는 장마와 제3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함에 따라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체제로 가동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주말 시작한 장마로 지역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며, 7월 2일 발생한 제3호 태풍이 북상해 제주도를 경유하여 큰 비와 돌풍이 예상된다.

긴 가뭄과 때 이른 폭염으로 농작물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비되지 않은 배수로로 인해 침수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지난 주말부터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비상체제 돌입하여 관련부서를 비롯한 시군, 유관기관도 비상근무

로 전환했으며, 상황 종료시까지 비상근무와 피해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미리 논두렁에 물꼬를 만들고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붕괴 방지를 하고, 배수로 잡초제거와 배수시설 정비로 원활한 물 빠짐 유도가 필요하다.

또한,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연약해진 농작물에 발생하기 쉬운 병해충 발생을 대비해 흰잎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방제약제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바로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법외노조 철회하라”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법외노조 철회-노동 3권 쟁취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3천배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법외노조 탄압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10일에 걸쳐 하루에 개인이 삼백백씩, 총 3천배를 할 예정이다.

## “지방분권 로드맵 그려야” 김부겸, 문 대통령에 당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은 3일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다”며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에 임명하면서) 지방분권 로드맵을 그릴 것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방 분권 과제와 관련해) 민간의 것들을 찾아내 공무원들과 조정하고 있다”며 “국회안에서도 개인에 지방분권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관리업무가 행정부로 편입되는 것과 관련 “류희인 차관이 군인 출신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판단할 것”이라며 “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일 정도의 큰 상황(터지면) 청와대랑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지 등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 1주일에 한번은 세종시에 들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전처가 행정부로 편입되면서 서울로 몇개 부서를 옮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행정부도 2년 내 내려가는 걸로 돼 있어 공무원들의 생활 터전을 생각해서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뉴스

## “내년 지방선거 대책수립 등 완벽 대비”

### 도선관위 마상호 사무처장 취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4층 대회의실에서 도위원회 전직위원 및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상호 사무처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마상호 선임 사무처장은 취임사에서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직원 개개인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마상호 사무처장은 군산고와 전북대



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전북선관위 지도과장, 관리과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김진성 기자

## 권익위, 온라인 채용서 지원서·학목 사전 공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채용 시 입사지원서와 입력항목이 미리 공개되지 않아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구직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입력 내용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자격증 취득, 공무원 시험, 기업 입사지원 등 구직 과정에서 겪는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일초 온라인 채용 시 입사지원서와 입력항목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구직자가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 및 훈련, 경력사항 등을 파악해 본인의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권고를 통해 이같은 불편함을 개선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원 과정에서 채용절차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을’의 입장인 구직자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어왔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영리목적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구직자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의 온라인 채용 시 입사지원서 양식을 사전에 공개하고 개인정보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구직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 전북도 빅데이터 분석... 골든타임 잡는다

### 5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50만건 자료 통해 소방차량 재배치

전북도는 지난 4월 행정부가 추진하는 2017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사업 중 소방분야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구급차 배치 운영 최적화 모델’ 사업에 선정되어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이번 빅데이터 사업은 전북의 최근 5년 동안의 화재, 구조, 구급 등 약 50만 건 정도의 소방활동 데이

터, 응급환자, 위험시설 등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했다. 출동차량 실시간 소요시간 및 지연도착 원인, 의료취약지역, 119 구급차 배치 우선순위, 소방관서와 소방차량 재배치 모델 등의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소방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결과로 소방안전서비스 부족지역이 도출되면 우리도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대책과 골든타임 확보 방안이

보다 객관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소방분야 이외에도 귀농귀촌, 장사시설 분야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중심의 정책수립 지원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협업체계 구축, 역량강화 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